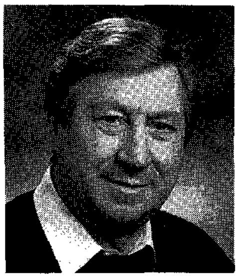
□ '95한국양계박람회 참관 소감

한국 양계산업 발전에 많은 공헌



Adrian Janssen
쌀멧 양계 시스템 대표

지난 8월 23~8월 26일까지 개최되었던 제3회 한국양계박람회가 성황리에 끝난 것을 축하하며 제1회부터 이번의 제3회에 이르기까지 참관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단히 적어볼까 한다.

본인에게 이번 제3회 박람회는 다채로우면서도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으며, 본 박람회의 준비를 담당한 대한양계협회 최준구 회장님과 오봉국 박사님 및 기타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아울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박람회를 지켜보면서 느낀 몇가지 점은 다음과 같다.

1. 양계산업과 관련된 각종 기계기구 등 다양한 범위에 걸쳐서 많은 업체들이 참가해 박람회가 성황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2. 특히 가금처리기구제작업체들이 처음으로 참가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3. TV, 비디오, 멀티비젼 등 다양한 첨단매체를 동원하여 현란한 조명과 다양한 영상으로 각 부스를 화려하게 꾸민 점은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각종 소음을 일으키고 또한 전형적인 "한국적 장식"을 찾기 어려운 점이 조금은 서운하였다.

4. 계란과 닭고기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코너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분야가 더욱더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5. 모든 참가업체, 특히 양계관련 기계기구 전시업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좀더 세밀한 주의를 가져주었으면 한다. 특히 중량물 및 그 부속품의 설치 및 해체에 대하여는 대회추진위가 엄격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각 업체에 적용하므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6. 전시기간은 과거 박람회처럼 3일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7. 전체적으로 이번 박람회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한국양계산업 전반, 특히 채란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같은 양계가족"으로써 세계 선진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한국내 양계관련 기계기구 제작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이번 박람회를 보고 느낀 점을 몇 자 적어보았다.

한국의 다른 산업분야와 같이 양계산업도 더더욱 발전하여 세계일류가 되기를 기원하며 다음번 박람회에서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양계